



일반부문 우수작

연옥의 코미디

MBC 일일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 관한 몇 개의 노트

한재연

1. 장르의 파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다. 거의 모든 시청자들이 어리둥절해했다. 시트콤이라는 장르의 기반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 순간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하 <지붕킥>)은 정말로 시트콤이라는 장르의 지붕을 뚫고 하이킥을 날렸다. 이 갑작스런 발차기는 결코 누구에게도 유쾌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지막회가 끝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경악, 분노, 저주의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호의적인 감상평을 올린 몇몇 시청자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매도당했다. <지붕킥>을 빠짐없이 시청한 ‘<지붕킥> 마니아’일수록 더욱 심하게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모든 사태는 시간이 흐른 뒤에 더 또렷하게 보인다. 세경과 지훈은 봄에 떠났고, 지금은 여름이다.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지붕킥>의 운명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어반복에서 벗어나기

<지붕킵>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 노년의 사랑, 학벌주의, 교육문제, 대화 없는 가족, 빈곤문제, ‘88만원 세대’의 고통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솜씨 있게 버무린 텍스트로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런 비평적 저널리즘은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독해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대중적 호응 이후에 사후 확인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더구나 전체 텍스트가 완결되기 전에 나온 논의들은 마지막회의 충격적 결말을 전혀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고, 종영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어리둥절함을 보상하는 논평들은 속류 사회학적 해석에 그치고 있다. 이를테면 현실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지붕킵>이 높은 인기를 누렸다는 해석이 그렇다.

여러 미디어 저널리즘이 TV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식에는 동어반복적인 모순이 있다.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을 발견하면 미디어들은 대개 그 이유를 텍스트 바깥에서 찾는다. <지붕킵>에서 예를 들어보면, 학력 차별과 청년 실업의 아픔을 체현하고 있는 황정음이라는 캐릭터에 시청자들이 깊은 공감을 표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 바깥에 실제로 그런 아픔을 지닌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이런 설명은 동어반복과 사후 확인에 불과하다. 또한 어떤 텍스트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중의 호응을 자동적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한 음절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속류 사회학적 해석과 동어반복을 벗어나서

<지붕킵>으로 들어가보자.

3. 텍스트와 현실의 진검 승부

<지붕킵>이라는 텍스트를 논하면서 장르에 관해 논의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르의 문법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붕킵>의 제작자와 시청자는 모두 시트콤이라는 공통의 코드를 갖고 게임을 벌인다. <지붕킵>의 마지막회를 본 시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코드를 제작자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탈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TV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적 계열에서 시트콤은 여러 장르의 사이에 위치한다. 여러 장르 사이에 위치한 시트콤은 후발 장르로서 주변 장르의 핵심적 요소들을 차용한다. 멜로 드라마, 뮤지컬, 홈드라마, TV쇼 등의 여러 장르를 자연스럽게 차용한 시트콤이 코미디만을 기반으로 한 시트콤보다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TV 프로그램의 장르 혼합과 더불어 시청자들의 감식안도 진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식과 문법에만 의존하는 시트콤은 웃음의 코드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흥미를 반감시키게 된다. 텍스트 생산자에게 장르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파괴하는 이중적 작업이 요청되는 데에는 이러한 까닭이 있다.

총 126회에 달하는 <지붕킵>은 125회까지 코미디와 멜로 드라마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지훈을 향한 세경의 사랑이 안타깝게 그려지는 사이에 보석과 현경은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희극적인 눈싸움을 하는 식이었다. 물론 <지붕킵>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몰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트콤의 멜로 드라마적 상황은 희극적인

전망을 품고 있었다. 여기까지 순수한 동의를 표한 시청자들은 <지붕킵>의 결말에서 멜로 드라마적 행복감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예컨대 세경이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준혁과 만날 수 있기를, 지훈이 고향에 내려간 정음을 찾아가서 프리포즈하고 둘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기를, 신애와 해리는 각자의 가족으로 돌아가 ‘식모 동생’이나 ‘주인집 딸’에서 벗어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시청자들은 지훈을 향한 세경의 사랑과 세경을 향한 준혁의 사랑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트콤이라는 장르 안에서 그들의 사랑이 아름다운 구원을 얻기를 소망한다. 적어도 <지붕킵>이 끝날 때,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본 자신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붕킵>은 예정된 멜로 드라마적 결말을 거부한다. 즉, 죽음이나 파멸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시청자에게 이러한 결말은 너무나 뜻밖이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스테이크를 먹으러 온 사람에게 소를 도살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소를 죽이고 나서야 스테이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쇠고기의 섭취와 도살 장면의 목격을 동시에 수행하고 싶은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것, 누구나 상상하고 있지만 구태여 그것의 실재를 확인하고자 하지 않는 것, <지붕킵>은 바로 그것을 텍스트의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시청자들은 당연히 정신적 외상을 입었을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려면 병의 원인이 되는 지점으로 돌아가서 사태를 언어화해야 한다. 마지막 장면의 당혹감을 언어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시청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기대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시청자들은 가족 시트콤이라는 장르 안에서 가족이 재결합되기를 바랐

고, 멜로 드라마적 변형을 맞본 뒤로는 등장인물들이 사랑으로 구원을 얻기를 희망했다. 그 두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 지점에서 <지붕킵> 이 마지막회에 한해서가 아니라 방영되는 내내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진검 승부를 벌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4.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환상

<지붕킵>은 “세경과 신애가 다시 아빠를 만나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첫회에 던져두고 중간과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음으로써 전체 서사의 동맥을 확보한다. 물론 “순재와 자옥의 연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음은 준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외선생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도 초반 스토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질문이지만 전체 서사를 관통하는 질문은 아니다. “세경과 신애가 아빠를 만나 함께 살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첫회에 제출되고 마지막회에 가서야 최종적인 답을 얻는다는 점에서 <지붕킵> 서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서사적 주제가 세경과 신애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붕킵>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순재네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은 없지만 상호 간의 무관심 속에 있다. 이 무관심을 희극적으로 활용한 예는 58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순재는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무관심을 질타하면서 ‘이순재 고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다. ‘이순재 고사’의 시험 범위는 순재의 자서전 『밥상은 넓고 반찬은 많다』 전체이다. 물론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은 이 시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단 두 사람은 예외이다. 사위 보석은 장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세경은 일등 상금 50만 원을 꼭 타겠다고 결심한다. 결국 세경이 보석보다 한 문제를 더 맞혀서 ‘이순재 고사’에서 일등을 차지한다. 겉보기에 단란한 중산층 가족인 순재네에 대한 이보다 더 잔혹한 풍자를 찾기는 어렵다. 세경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 곧바로 회복될 수 있지만 순재네는 무관심이라는 더 큰 벽을 넘어야 한다.

순재의 애인 자옥은 60대인데 아직 독신이다. 그녀에게는 한옥집 식구들이 대안적 가족으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순재와의 결혼을 통해 순재네 가족으로 편입되어야 전통적 의미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 시청자들은 자옥의 이런 위치 때문에 순재네와 한옥집을 가족의 형태로서 번갈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다. 순재네가 지금은 매우 드문 전통적 대가족이라면 한옥집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합집산할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한 공간에서 머무는 대안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안가족은 순재네와 비교해볼 때 대단히 평등한 관계이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과가 끝난 후에는 자신에게 떨어진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경제적 상호 부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지붕킵>을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두 가지 결론을 얻는다. 첫째, 가족을 결합시키는 것은 ‘가족애’보다도 ‘돈’이다. 둘째,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애’도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돈은 가족애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셈이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설정이다.

세경과 신애가 아빠와 헤어져서 서울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족애가 넘쳐도 가정을 꾸리려면 그 사회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부를 획득해야 한다. 마지막회에서 세경의

가족이 결국 한국을 떠나 타히티로 가게 된다는 설정은 그래서 이들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한국 사회로부터 방출을 명령받은 것 같다. 순재의 가족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 역시 돈이다. 이것은 순재가 보석에게 사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가족애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상속과 증여에 의해서 가족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한옥집 식구들이 월세를 통해서 잠정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라. 월세를 올린다는 정보는 이 대안적 가족에게 불화를 가져온다. <지붕킵>을 살펴보면 모든 가족은 영구히 존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은 모든 가족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웃음 뒤에 이어진 씁쓸한 현실 인식이다.

5. 사랑의 불가능성

앞서 말한 대로 <지붕킵>은 코미디와 멜로 드라마 사이를 오가다가 종국에는 멜로 드라마로 치닫는다. 가족의 문제와 더불어 사랑은 <지붕킵>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세경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녀는 지훈을 사랑한다. 지훈에 대한 세경의 사랑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는 <지붕킵> 49회에서 비극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세경은 사랑니 때문에 치통이 심하다. 그것을 알아차린 지훈은 자신이 아는 치과에 세경을 데려간다. 둘은 치과 근처의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 함께 치과를 가기로 하는데 불청객이 끼어든다. 지훈의 의과대학 동기이자 옛 병원 동료인 소정이 나타난 것이다. 둘은 세경을 앉혀두고 의학 논문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을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뛰어나간다. 그리고 혼자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는다. 그 장면

을 보면서 사랑니 때문에 아파하는 세경에게 던진 지훈의 농담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너 누구 좋아하니?” 이 관습화된 농담에 대해 세경은 진지하게 그리고 애써 진심을 감추면서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정말로 코가 베인 것처럼 세경은 지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니가 났다. 지훈에 대한 세경의 사랑은 사랑니처럼 뽑아내야만 하는 고통인 것이다.

지훈과 정음의 사랑은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되고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다. 그러나 둘의 연애에도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한쪽이 너무 기울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훈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정음이 도망가는 것은 바로 이 ‘기울기’를 스스로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음은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지훈과 자신의 거리를 절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취업 실패와 아버지의 부도 때문에 정음은 지훈과의 연애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물론 이것은 정음의 독자적인 판단일 뿐이지만 시청자들은 이 판단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런 판단을 내린 정음이 성숙했다고 느낀다. 지훈과 정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시청자들의 바람과 정음의 결단을 이해하는 시청자들의 인식은 상호 모순적이면서 동시에 존재한다.

준혁의 세경을 향한 사랑은 계급적 관점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세호가 세경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준혁을 향해 던지는 조언—“세경이 누나 입장에서 너를 거절할 리가 없잖아.”—은 이 점을 더 극명하게 드러낸다. 준혁에게는 세호 같은 계산이 없다. 심지어 세경이 지훈을 좋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혁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준혁의 순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슴 아프지만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지고 보면 시청자들은 마지막회에서 놀랄 것이 아니라 매회 놀랐어야 한다. <지붕킵>에서 장르의 관습은 단 한 번도 현실의 법칙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경, 지훈, 정음, 준혁의 엇갈린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지붕킵>은 시종일관 비관적이었다.

6. 연옥의 코미디

시트콤이 희극의 범주에 속하는 이상, 대개의 경우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얻고 가족을 되찾는다. 그런데 <지붕킵>에서 사랑은 그대로 엇갈린 채 끝나고 가족은 재결합하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크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희극의 가치는 그것에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웃는 희극이 있는가 하면 웃은 다음에 고민에 빠지는 희극도 있다. <지붕킵>은 후자다. 후자를 택함으로써 <지붕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를 원했다. 웃음은 망각의 친구이고, 고통은 기억의 간수이므로.

지옥에는 희극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 천국 역시 마찬가지다. 오직 연옥에서만 지옥을 벗어난 것을 기뻐하고 천국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웃을 수 있다. 단테(Dante)의 『신곡』의 원제가 ‘Comedia’, 즉 희극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이 모든 고통을 체험한 뒤에 신에게 귀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다. 그러므로 단테는 자신의 서사시를 ‘희극’이라 불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붕킵>은 희극이다. 지옥의 고통을 잊지 않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연옥의 코미디이다. 시청자들은 웃고 즐기다가 마지막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다시 말해서 연옥을 새삼 생각해볼 기쁜 기회를 얻은 것이다.